

2024년 01월 14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 묵상기도(인도자는 사편 2편 7~8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212(통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욥기 42장 1~6절(구약p.802)

1.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6.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 ◎ 말씀선포 /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잠언의 저자는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로 더욱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른 길임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던 욥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위로와 평안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책망하시는 듯한 말씀입니다. 천하 만물의 이치와 베풀고 리워야단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 그 어느 것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지한 인간임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약하고 부족한 세상의 힘과 능력,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지혜를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더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1.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일을 말했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할 때 방어하기 위해 분명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모든 이치를 알고 있는 듯 함부로 말한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알 수 있는 지식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 인간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자들은 자신들이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고 착각해서 교만하게 행합니다. 극히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와 넓이가 무한함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3장 17~1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사실 욥도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상황이, 사람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요동하게 하여 어지럽게 함으로 결국 욥은 잠시 겸손한 태도를 잃어버리고,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 교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욥이 지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신의 행위에 대해 회개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깨달아지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고, 더욱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시편 1편 4~5절에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의 환경이, 상황이, 사람이 우리를 요동하게 하고 흔들어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말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 올 한해도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함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더욱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 욥은 이제 아는 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겠으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본문 4~5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만 무지함에서 해방되어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이니 그 상황을 반드시 변화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 인지를 묻는 것이 우선해야 할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욥은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결론을 내려놓고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지만, 참된 지혜를 가진 성도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안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감추어

진 비밀과 같이 알아지지 않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며, 더욱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어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3.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로 회개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 본문 5~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신이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뵈옵는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구체적이고, 더욱 깊이 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욥은 갑자기 임한 재앙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지식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욥을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지함으로 범죄 한 일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와같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수록 상대적으로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힌 담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화평이 되사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 된 것, 곧 죄의 모든 문제로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신 오직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해는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을 입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주님을 닮아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으로 회개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며 이 지식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이 참된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453(통506)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 폐 회 / 주기도문